

테니스 신네르, 마드리드오픈 결승행...마스터스1000 5연패 '청신호'

등록 2026.05.02 10:40:25



[마드리드=AP/뉴시스] 안니코 신네르(1위·이탈리아)가 1일(현지 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ATP 마스터스 1000 무투아 마드리드 오픈 단식 준결승에서 아르튀르 피스(25위·프랑스)와 경기하고 있다. 신네르가 2-0(6-2 6-4)으로 승리하고 결승에 올라 알렉산더 츠베레프(3위·독일)와 우승을 다툰다. 2026.05.02.

[서울=뉴시스] 김진엽 기자 = 안니코 신네르(1위·이탈리아)가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마드리드오픈 결승에 올라 사상 첫 마스터스 1000 5연패 가능성을 높였다.

신네르는 2일(한국 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대회 12일째 남자 단식 준결승에서 아르튀르 피스(25위·프랑스)를 2-0(6-2 6-4)으로 제압했다.

1세트에서 상대 서브 게임을 두 차례 브레이크해낸 데 이어, 2세트도 어렵지 않게 승리를 거뒀다.

22연승을 기록한 그는 4강에서 알렉산더르 블록스(벨기에)를 2-0(6-2 7-5)으로 물리치고 올라온 알렉산더 츠베레프(3위·독일)와 결승서 격돌한다.

신네르는 츠베레프와의 상대 전적에서 최근 8연승을 비롯해 9승4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만약 신네르가 츠베레프까지 넘는다면 사상 최초로 마스터스 1000 대회 5연속 우승이라는 대업을 달성하게 된다.

신네르는 지난해 11월 파리 마스터스를 시작으로 이번 시즌 인디언웰스, 마이애미, 몬테카를로 등 마스터스 1000 대회에서 연속 우승을 거뒀다.

'전설' 노바크 조코비치(4위·세르비아), 라파엘 나달(은퇴·스페인)은 마스터스 1000 대회 4연속 우승을 각각 3회, 1회씩 기록했다.

한편 여자부 결승에서는 미라 안드레예바(8위·러시아)와 마르타 코스튜크(23위·우크라이나)가 격돌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wlsduq123@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